

민주당 “석패율제 재고해달라”

야3당 ‘연동형 캡’ 수용 선거법 합의안 마련 민주, 의총서 재협상 결론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장당준 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종중·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안신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입장이라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종중·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분배조정(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지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

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들에 대해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0석 상한선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3+1 협의한 대표들에게 석패율은 한번 더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위해서는 4+1협의체가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을 더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안철수 오면 전권 주고 사퇴”

안철수계 의원 만나 제안...安 응답은 아직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미국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의 전권을 넘기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대표직도 사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사를 안철수계 의원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손 대표는 지난 15일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당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어려우니 국민 열망에 부응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 당을 책임지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고 김수민 의원이 전했다. 손 대표는 나아가 “바른정당계로 인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우리당이 ‘호남당’이나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모양새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전 의원이 손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손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한 만큼 안 전 의원의 결정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 내년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다만 안 전 의원은 손 전 대표의 제안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與 일각 12·16대책 우려 목소리

지역 건설 경제활력 당정협의회...“대출 금지는 초강수”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선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참석해 있었다.

윤 수석부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

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도 정부의 대책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대출을 조이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이 조치로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뀐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너무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 전략공천관리위 설치...위원장에 도종환

이낙연 서울 종로 출마·비례대표 등 역할 주목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 설치를 의결했다. 전략공천위는 전략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하는 기구다. 그동안은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략공천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전략지역구에 어떤 ‘말’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우선 논의한다

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가 우선 전략공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진영(서울 용산)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현직 장관인 박영선(서울 구로)·김현미(경기 고양성)·유은혜(경기 고양성)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도 큰 만큼 당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 역시 전략공천 고려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우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리더십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리가 위원장직을 갖고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가 각종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출마가

능성이 거론된다. 또 세종시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총리가 내각을 통괄해온 만큼 행정 중심지 세종시 출마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대치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공식사도 시한(지역구 출마 기준 1월 16일)까지 마무리될지 미지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출마 쪽에 무게를 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례대표 출마 시 공식사도 시한은 내년 3월 16일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권 후보인 이 총리에 대해 지역구 출마를 중용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위를 부여해 이 총리가 보다 넓게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

김기현 첩보' 가공 단서 추적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정부서울청사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내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인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사무관을 한차례 불러 제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준비조직인 일명 ‘공입합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측근들을 차례로 불러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경위와 선거전략 수립 과정,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77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안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땅 2238㎡ 전원주택 등 적합 7천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총용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무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총용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간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시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노대동 노인간양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 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1억
- 동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사성재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총용 6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63㎡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 옆 문앞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